

# 이중차이 모형을 적용한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과 미국소비자의 피복비 지출 변화 분석 및 비교<sup>†</sup>

## Changes in the Clothing Expenditure using Difference in Difference Model: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U.S. Households

이미영\*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전공

Lee, Mi Young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s, Inha University

###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differences demonstrated by changes of consumers' clothing expenditure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ince the mid-1990s. Evidence for this study was extrapolated from annual data provided by the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which was carried out in Korea between 1996 and 2008, and the Consumer Expenditure Survey, which was carried out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same time period. The results include: ① The proportion of the clothing expenditure decreased during the subject period in bo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② The decrease in proportional clothing expenditure was greater in Korea than in the United States; ③ Although the relative prices of clothes decreased greatly during this period in both countries, it was determined that the decrease in clothing prices in the United States was greater when compared to those in Korea; and ④ By using the DID(Difference in difference) model, the author contends that a decrease in clothing purchases contributed to the decrease of prices for clothing in the United States, while in Korea, the decrease in prices for clothing was also impacted by other factors including changes in household expenditures for education and communication.

**Keywords:** Clothing expenditure, household expenditure, Korea, US, difference in difference(DID)

### I. 서론

우리나라의 피복비 소비 지출은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와 함께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에 대한 예외는 1980년대 초의 정치사회적 혼란기(Jung & Rhee, 1997)와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로서 두 시기 모두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때(Ji & Rhee, 1999)이다. 즉 1970년대부터 1990년대 말까지 30년 정도 기간의 가계의 피복비

지출 변화를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면 경제가 성장하고 가계 소득이 증가할 때는 피복비 지출도 증가하며, 반대로 경제가 위축되고 가계 소득이 감소할 때는 피복비 지출도 감소하고 있음을(Ji & Rhee, 1999; Jung & Rhee, 1997)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1979년부터 1998년까지 피복비 지출 변화를 분석한 Ji & Rhee(1999)의 자료에 따르면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일어나기 전인 1996년부터 피복비 지출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

<sup>†</sup>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0-327-G00058)

\* Corresponding Author: Lee, Mi Young  
Tel: 032-860-8137 Fax: 032-865-8130  
Email: mylee@inha.ac.kr

반까지 피복비 지출 변화를 분석한 Lee(2005)에 따르면 외환위기가 지난 2000년대 초에도 가계의 피복비 지출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었다. 즉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피복비 지출 변화를 보면 비록 외환위기 기간에 피복비 지출이 대폭 감소하였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감소 추세가 진행되었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도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복비 지출 변화 행태에 대하여 Lee(2005)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피복비 지출 감소의 원인을 외환위기보다는 통신비나 교육비 등 다른 소비 지출의 증가에 따른 구조적인 변화에서 찾고 있으며, Lee(2006)에서는 여기에 추가하여 피복 제품의 가격 하락도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OECD, 2010), 특히 사교육비 부담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2005)에 따르면 2000년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1990년의 3배이며, 2004년 1인당 교육비는 2000년에 비해 30%가 증가하는 등 교육비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급속히 확산된 인터넷과 휴대폰 보급에 따라 1990년에 월 9천원대이던 통신비 지출은 2004년에는 144천원이 넘어서 15배 이상 늘어났다. 이처럼 교육비와 통신비는 1990년대 이후 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의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글로벌 소싱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였다(Lee *et al.*, 2002; Son, 2007). 글로벌 소싱을 통한 중저가 제품 수입 급증 및 중저가 브랜드의 등장을 지적하면서, Lee(2006)는 피복비 지출 감소에 대해 가격 요인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즉, Lee(2005, 2006)는 1990년대 중반 이후의 피복비 지출 감소는 단순히 외환위기로 인한 소득의 감소나 심리적 부담 때문만은 아니며, 통신비와 교육비처럼 타 소비 항목의 지출 증가 및 피복비 가격의 상대적인 하락이 연계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1965-1993 기간의 피복비 지출 행태를 분석한 Jung & Rhee(1997a)에서도 1980년대 이후 총소비지출에서 피복비 지출 비중이 서서히 낮아지는 경향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으로서 의류 가격의 상대적 하락과 교통 통신비, 교육, 문화, 오락비 등 타비목 지출 증가를 들었으나, 의류 가격의 하락과 타비목 지출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며 그 이전 기

간에는 이런 현상이 완만하게 진행되었기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지는 않았다.

우리나라 소비자의 피복비 지출 행태에 대하여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피복비 지출 감소를 경제 상황 혹은 소득 변화와 연결하여 소득 상승기에 피복비 지출 증가, 하강기에 지출 감소하는 것을 밝힌 것에 비하여, Lee(2005, 2006)는 1990년대 말 이후 가계 소비 패턴 변화와 피복비 가격 하락이라는 측면에서 찾고 있다. 그런데 Lee(2005, 2006)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분석 기간이 2000년대 초반까지이다. 2000년대 초반의 피복비 지출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0년대 말에 비하여 증가하였지만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감소하였는데, Lee(2005)는 이를 근거로 외환위기가 없었다라든 피복비 지출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은 외환위기로부터 완전히 회복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복비 지출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하여 감소한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이후 피복비 지출은 계속 증가했을 것이며, 이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의 피복비 지출 감소가 구조적인 변화 때문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셈이 된다. 둘째, 구조적인 변화의 이유로 사교육비 및 통신비 증가 등 다른 소비 지출의 증가와 피복비의 상대적인 가격 인하를 들고 있지만 이 두 요인이 각각 전체 피복비 지출 감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1990년대 후반 이후 피복비 지출 감소의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피복비 지출 행태 분석 기간을 2000년대 후반(2008년)까지 연장함으로써 1990년대 후반 이후의 피복비 지출 감소가 '외환위기'라는 특정한 효과에 기인한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소비 지출 행태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장기적인 추세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피복비 지출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외환위기, 사교육비 증가 등 우리나라에 고유한 소비 지출 환경 변화의 효과와 가격하락이라는 양국에 공통된 요인에 의한 효과를 분리하여 파악하려고 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소비지출 환경 변화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미국의 소비자지출조사(Consumer Expenditure Survey)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1990년대 말의 아시아 경제위기를 겪지 않았기에 이시기의 경제위기로 인한 피복비 지출의 급격한 감소는 없었으며, 교육비의 경우도 미국의 사교육은 우리와 같이

일반화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가계의 교육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onsumer Expenditure Survey, 2011). 반면에 저개발국에서의 수입 급증에 따른 피복비의 상대적인 가격 하락은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현상으로 볼 수 있다(Son, 200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피복비 지출 변화 행태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피복비 지출 변화의 원인을 ① IMF 외환위기, 사교육비와 통신비 등 다른 소비 지출의 증가와 같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원인에 기인한 것과 ② 피복비의 상대적 가격 하락과 같은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에 공통된 원인에 기인한 것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처럼 선행 연구들이 중점을 두었던 소득 변화의 영향 이외에 타 소비 항목 지출 증가 및 의류 산업 글로벌화의 영향처럼 거시환경적 변화가 피복비 지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소비자의 피복비 지출 행태를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한다는 학문적 측면의 기여뿐만 아니라, 패션 산업 생산 및 유통업자들이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피복비 지출 변화에 관한 연구

#### 1) 피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특성

피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 특성 요인으로는 소득, 가구수, 연령, 교육수준, 직업 등이 있다. 우리나라 가구의 피복비 지출은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ark & Bae, 1997), 가족원의 수가 많을수록(Kim & Wang, 1989; Park & Bae, 1997; Park & Widdow, 2001), 배우자의 연령이 낮을수록(Kim & Wang, 1989), 가구주의 연령이 55세 이하인 경우(Park & Widdow, 2001), 가구주의 직업이 사무직인 경우(Kim & Wang, 1989), 맞벌이 가계인 경우(Yang, 1997, 199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피복비 지출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미국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는데, 미국소비자지출조사(Consumer Expenditure Survey: CES)의 데이터를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구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와 비슷하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Dardis *et al.*, 1981; Norum, 1989), 소득

이 높을수록(Dardis *et al.*, 1981; Norum, 1989), 가구주의 직업이 사무직인 경우(Norum, 1989), 맞벌이 배우자의 소득이 높을수록(DeWeese & Norton, 1991) 가계의 피복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피복비 지출 변화에 관한 시계열적 연구

1965년부터 1992년 사이의 피복비 지출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본 Jung 와 Rhee(1997a)에 따르면, 소비자 피복비 지출은 사회, 경제적 변화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년대 이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피복비 지출이 증가하다가 1980년 사회적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그 후 다시 증가하였다. 그리고 소득 또는 총소비지출 증가에 따라 피복비 지출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증가율은 시기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총소비지출에서 피복비 비중은 1965년부터 1979년까지는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이후 1993년까지는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변화로 인한 피복비 지출 변화 연구는 외환위기 직후에 다수 이루어졌는데(Lee, 1998; Ji & Rhee, 1999; Kwak *et al.*, 1999; So, 2000), 외환위기로 인한 급격한 경기 변화가 피복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쳐 가계의 피복비 지출 규모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Ji 와 Rhee(1999)은 1979년에서 1998년까지 자료를 분석하여 피복비 소비 지출은 총소비지출 보다 경기변화에 더 민감하고, 경기 호황기에 피복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것 보다 경기 불황기에 피복 소비지출이 더 많이 감소한다는 것을 밝혔다.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소득 감소는 다른 지출 비목들에 비하여 피복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Kwak *et al.*(1999)은 외환위기 이후 외식비와 피복구입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고, Lee(1998)은 외환위기 이후 소비자들이 외식비, 피복구입비, 에너지비용, 문화레저비를 감소하고자 한다고 보고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외환위기 전후의 피복비 지출 변화를 살펴본 Lee(2005)에 따르면, 외환위기 직후 불황기의 피복비 지출 감소는 소득이나 총소비 지출 감소보다 더 심했던 반면에, 2000년 회복기의 증가 수준은 소득이나 총소비 지출의 증가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외환위기 직후 지출이 대폭 감소한 후 회복기에도 별로 증가하지 않은 것은 피복비만의 독특한 지출 패턴으로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해외 피복비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미국의 피복비 지출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Consumer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사용하여 피복비 지출 패턴의 변화, 피복비 지출의 영향 요인 등을 분석하였다(Dardis *et al.*, 1981; DeWeese & Norton, 1991; Norum, 1989). 1929년에서 1989년까지의 피복비 변화를 살펴본 Winakor(1989)의 연구에서 피복비 지출은 1929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전체 소비지출에서의 피복비 지출의 비중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의류의 상대적 가격과 품질, 다른 비목과의 관계, 패션의 변화, 인구 통계학적 요인, 경제의 구조 변화를 지적하였다. 미국에 비해 다른 나라의 피복비지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중국에서는 1985년에서 1996년간 중국소비자 가계의 피복비 지출변화와 소득탄력성을 살펴본 논문이 있었는데, 소득이 증가할 수록 피복지출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Li *et al.*, 1999). 일본의 경우 Ken(2001)은 일본소비자의 피복비 지출이 줄어들어 지난 40년간 전체 가계지출에서 피복비 비중이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주장하였다.

### 3) 1990년대 이후 타비목 (교육비와 통신비) 지출 증가

본 연구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다른 비목의 지출 증가가 피복비 지출감소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여 1990년대 이후의 타 비목 (교육비와 통신비)의 지출 증가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Lee(2002)는 조사 대상의 70% 정도가 사교육비에 대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고, 사교육비 부담 정도가 높은 가계일수록 가계의 수입 만족도가 낮았으며,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렇듯 사교육비 지출의 경제적 부담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교육비 수준이 높은 가계의 경우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다른 비목의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Kim & Yeo, 1996).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할 경우 피복비나 여가활동비의 소비를 줄여 사교육비 증가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ung, 1999).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한 통신비 지출의 경우는 2004년에는 6.1%로 식료품, 교육, 교통비목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고 (Shin, 2005), 90년대 중반 이후 통신비는 소득 및 가격 탄력성이 하락하여 필수재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Oh & Cheo, 2004).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통신비, 사교육비 등의 타비목 지출 증가 및 의류산업 글로벌화에 따른 피복비 가격 하락 등 거시 환경적 변화가 소비자의 피복비 지출 행태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과 미국 소비자 피복비지출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피복비 지출 감소에 거시 환경적 요인들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① 1990년대 후반의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② 통신비, 사교육비 등 타비목 지출 증가에 따른 대체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③ 패션산업 글로벌화에 따른 가격하락의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 2.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1996년-2008년 기간의 한국, 미국의 가구별 지출조사(Consumer Expenditure Survey)를 사용하였다. 가구별 지출조사는 가구를 분석단위로 하며, 가구의 소득 및 지출에 대하여 세부 항목별로 조사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연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의 자료는 전국가계조사(Household Expenditure Survey)이며, 미국 자료는 소비자지출조사(Consumer Expenditure Survey)를 사용하였다. 두 자료의 명칭은 서로 다르지만 조사 항목과 방식은 유사하기 때문에 비교 연구에 적합하다. 한국의 전국가계조사는 통계청에서 수집한다.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9,000 이상의 표본 가구를 층화 및 확률비례 추출하여 소득과 비목별 소비지출에 대해 조사, 수집한다. 비목별 지출은 피조사원의 가계부 기장 방식을 이용하고, 가계소득, 가구원수, 주거상태 등의 인구 사회학적인 자료는 면접 조사를 통해 수집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한국 자료는 국가통계포털 사이트 (<http://kosis.kr>)에서 획득하였다.

미국의 소비자지출조사(Consumer Expenditure Survey)는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소비자들의 소득, 소비, 가계특성 등 소비활동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규모가 큰 지출에 관해 조사하는 Interview Survey와 전

국가계조사와 같이 가계부 가장 방식을 이용한 Diary Survey로 구성되는데, 매년 각각 약 7,000 이상의 Interview Survey와 Diary Survey가 수집된다 (Consumer Expenditure Survey, 2011). 한국과 미국 모두 소비지출에는 식료품비, 주거비, 피복 및 신발, 보건 의료비, 교육비, 교양 오락비, 교통 통신비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미국 자료는 Bureau of Labor Statistics 사이트 (<http://www.bls.gov>)에서 획득하였다.

1996-2008 기간의 한국과 미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석의 마지막 해인 2008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경우 전체 표본의 가계당 가구원 수는 3.3 명, 연평균 소득은 약 4,068만원, 연 소비지출은 2,592만원이었으며 피복비로 약 158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하게 2008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 전체 표본의 가계당 가구원 수는 2.5명, 연 평균소득은 \$61,774, 연 소비지출은 \$43,545이었으며, 피복비로 연간 \$1,801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분석 모형 및 방법

앞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 1) 시계열적 기술통계 분석

한국과 미국 소비자의 피복비 지출 행태가 어떤 추세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양국 소비자의 피복비 지출 행태 변화를 ① 피복비의 상대적(가계 소득 및 소비 중의 피복비 비중) 지출 변화와 ② 피복비와 다른 항목 (식료품비, 외식비, 주거비 등)의 지출 변화 비교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2) 이중차이(DID) 모형

피복비에 미치는 영향 중 한국과 미국의 공통적인 영

향(예: 가격 하락)과 고유한 영향 (예: 타비목의 지출증가)를 분리하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 자료에 대한 이중차이(Difference in Difference) 모형을 적용하였다. 이중차이 모형은 실험 또는 준실험설계에 의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모형으로서(Babbie, 2003; Lee, 2009),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비교를 통하여 실험집단에 고유한 변인이 미친 효과를 추정한다. 이 모형의 적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ure 1]과 같다.

[Figure 1]에서 한국의 T<sub>1</sub> 시기와 T<sub>2</sub> 시기의 피복비 지출은 각각 O<sub>1</sub>, O<sub>2</sub>이고, 미국의 같은 시기 피복비 지출은 각각 O<sub>3</sub>, O<sub>4</sub>이라고 하면, 두 시기 간 한국의 피복비 지출 변화는 (O<sub>2</sub>-O<sub>1</sub>)이 되며, 미국의 피복비 지출 변화는 (O<sub>4</sub>-O<sub>3</sub>)가 된다.

T<sub>1</sub> 시기와 T<sub>2</sub> 시기의 피복비 지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를 살펴보면, 선행연구에서 논의하였듯이 피복비 지출은 소득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피복비 지출도 가격의 영향을 받는다. 지출액은 가격과 수요의 곱인데 가격과 수요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가격 변동 시 지출액 변동의 방향성과 크기는 수요가 가격에 반응하는 정도, 즉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가격 하락 시 지출액은 증가하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한다. 피복류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피복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로 1보다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Jung & Rhee, 1997b), 가격이 하락하면 피복비 지출은 감소한다.

또한 피복비 지출은 다른 소비 지출의 영향을 받아서, 교육비 등 다른 비목의 지출이 증가하면 소비자들이 피복비 지출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Chung, 1999; Ji & Rhee, 1999). 그 밖에 가족 구성, 학력 등 다양한 요인이 피복비 지출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데 가족 구성, 학력 등 그 밖의 요인들은 개별 가구별 피복비 지출 행태의 차이를 규명하는 데는 의미 있지만, 전체 가구 평균적으로는 이러한 요인들이 단기간에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기

Country \ Time	T <sub>1</sub>	T <sub>2</sub>
	Korea	O <sub>1</sub>
U.S	O <sub>3</sub>	O <sub>4</sub>

[Figure 1] Proposed Research Model of Difference in Difference (DID)

에 전체 가구에 대한 시기에 따른 지출액 변화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1996-2008 기간의 피복비 지출 변화를 분석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춰볼 때 의미 있는 요인으로 앞에서 언급한 소득 변화, 타비목 지출변화, 가격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996-2008 기간 피복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소득, 타비목 지출, 가격이라고 했을 때, 한국과 미국에서 이 요인들은 어떻게 변화했을까를 본 논문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소득의 경우 불변가격 기준으로 1996-2008 기간에 한국은 58.5% 증가하였으며 미국은 23.8% 증가하여 한국의 소득 증가율이 34.7%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소득 증가로 인한 피복비 지출 변화 정도는 한국과 미국이 다를 것이다. 그런데 소득 증가에 기인한 피복비 지출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이 아니므로 이러한 소득 증가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피복비 지출 절대액의 변화 대신 총소비지출 중의 피복비 지출 비중, 즉  $\frac{\text{피복비 지출}}{\text{총소비지출}}$  을 분석하였다. 소득이 증가할 경우 분자인 피복비 지출뿐만 아니라 분모인 총소비지출도 증가한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소득증가율이 다르더라도 이 차이는 분모와 분자에 모두 영향을 미치므로 두 국가의  $\frac{\text{피복비 지출}}{\text{총소비지출}}$  변화에는 소득 증가율 차이가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물론 소득 증가에 따른 피복비 증가율과 총소비 증가율은 동일하지 않으며 한국과 미국 간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양국의 소득증가율 차이의 영향을 완전하게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이로 인한 영향은 매우 작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서 피복비 비중은 10%이고 피복의 소득탄력성은 0.9, 총소비의 소득탄력성은 1이라고 하면, 소득이 10% 증가했을 때, 피복비 비중은 9.9%로 0.1%포인트만 감소하므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타비목 지출과 가격을 살펴보면, 본 연구자료 분석 결과 한국과 미국의 비목별 지출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 교육·통신비 급증은 한국에 고유한 현상이며, 미국의 경우 특별하게 지출이 급증한 비목이 없었다 <Table 1, Table 2 참조>. 한편 가격 하락은 한국과 미국의 공통 요인이었다 <Table 4 참조>.

T<sub>1</sub>과 T<sub>2</sub> 시기 간 한국의 지출 변화(O<sub>2</sub>-O<sub>1</sub>)와 미국의 지출 변화(O<sub>4</sub>-O<sub>3</sub>) 크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한국과 미국이 공통으로

겪었던 요인인 가격하락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에 고유한 요인인 교육·통신비 등 타비목 지출 급증이다. 즉 '(O<sub>2</sub>-O<sub>1</sub>)=고유요인효과+공통요인효과' 그리고 '(O<sub>4</sub>-O<sub>3</sub>)=공통요인효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O<sub>2</sub>-O<sub>1</sub>)에서 (O<sub>4</sub>-O<sub>3</sub>)를 차감한 [(O<sub>2</sub>-O<sub>1</sub>) - (O<sub>4</sub>-O<sub>3</sub>)]는 한국의 고유요인 효과를 보여준다.

한국과 미국의 공통요인효과 크기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O<sub>2</sub>-O<sub>1</sub>) - (O<sub>4</sub>-O<sub>3</sub>)]가 한국 고유요인효과만을 보여준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정확하지 않은 수 있다. 본 연구자료 분석 결과 피복 가격은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이 하락하였으므로 <Table 4 참조>, 가격 하락으로 인한 피복비 지출 감소 효과는 미국이 더 클 것이다. 이 경우 [(O<sub>2</sub>-O<sub>1</sub>) - (O<sub>4</sub>-O<sub>3</sub>)]에는 한국의 고유요인효과 이외에 가격 하락폭의 차이로 인한 효과도 포함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격 하락폭 차이에 기인한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가격 변화를 보정한 뒤의 분석을 추가하였다. 그 밖에도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한국과 미국의 고유요인 및 공통요인도 있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그러한 효과들도 감안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 회귀분석

경제위기, 교육·통신비 지출 증가, 글로벌화에 따른 피복비 상대가격 하락이라는 거시환경적 변화가 피복비 지출 변화에 미친 영향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세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피복비 지출 규모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추가한다. 분석기간이 1996년-2008년이므로 분석 자료 수는 13개이다. 따라서 추정계수값에 대한 엄밀한 통계학적 판단은 어렵지만 대략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IV. 결 과

### 1. 한국미국 소비지출 변화

#### 1) 한국 소비자 피복비 가계지출 변화

1996-2008 기간 동안 한국은 1997년에 외환위기로 1998-9년간 소득과 그에 따른 소비지출이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00년 이후 점차 회복되었다. 연도별 총소비지출액을 살펴보면 1996년 1,767천원에서 1998년에는 1,481천원, 1999년에는 1,650천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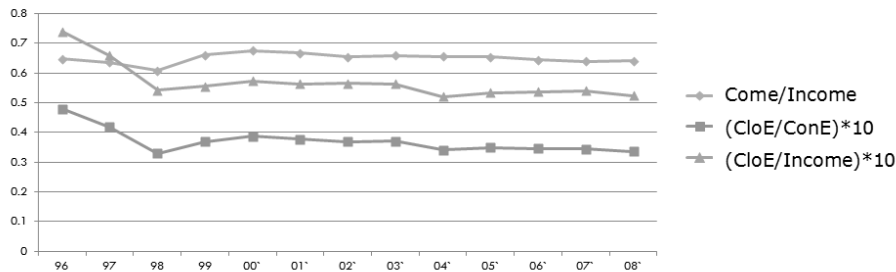
다가, 2000년 이후 1,811천원으로 회복되었다. 아래의 [Figure 2]에는 1996-2008년 기간 동안 한국 가계의 피복비 지출액 규모 변화가 소득 및 소비에서의 비중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보면 1996년-2008년 기간 동안 한국의 소득 및 소비 중 피복비 비중은 1996년부터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까지 급격히 감소한 후, 2000년까지 다소 증가하였다가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Table 1>에는 199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의 가계 지출 항목별 비중(전체 가계지출 대비 해당 항목 지출)이 제시되어 있다. 1996-2008 기간 동안 주요 소비 항목별 지출변화를 살펴본 결과, 식료품, 피복비 등 생활필수항

목의 소비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다. 식료품은 1996-2008 기간 동안 3.01%포인트가 감소하였고 피복비는 2.16%포인트가 감소하였다. 감소한 %의 절대 크기(%포인트)는 식료품이 더 크다. 그러나 피복비 비중은 식료품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비중 대비 감소폭은 피복비가 식료품비에 비하여 훨씬 작아서, 식료품비는 10.6% 감소한 데 비하여 피복비는 29.2% 감소하였다.

가장 크게 증가한 항목은 교육비와 통신비인데, 교육비 비중은 1996년에 9.8%였던 것이 외환위기 기간과 관계없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12.0%로 3.26%포인트가 증가하였고 통신비 비중은 1996년 2.1%에서 2008년 5.5%로 3.40%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이를 비중



[Figure 2] Korean Households' Clothing Expenditure Proportion during 1996-2008 (CloE=Clothing Expenditure; ConE=Consumption Expenditure)

<Table 1> Korean Households' Consumer Expenditure Proportions during 1996-2008 (%)

Year / Category	96	97	98	99	00	01	02
Food	28.46	28.73	27.57	27.73	27.5	26.46	26.35
Housing	3.65	3.43	3.53	3.27	3.26	3.4	3.4
Clothing	7.41	6.59	5.43	5.57	5.73	5.64	5.65
Health Care	4.44	4.47	4.44	4.46	4.14	4.16	4.29
Education	9.78	10.28	10.74	10.66	10.89	10.79	10.86
Entertainment	5.17	5.21	4.52	4.9	5.28	4.89	4.83
Transportation	10.55	10.72	11.33	12.28	11.77	11.62	10.91
Communication	2.08	2.4	3.23	3.79	4.63	5.48	6.08
Total	71.54	71.83	70.79	72.66	73.2	72.44	72.37
Year / Category	03	04	05	06	07	08	08-96
Food	26.62	27.19	26.59	25.86	25.23	25.45	-3.01
Housing	3.25	3.19	3.27	3.54	3.33	3.26	-0.39
Clothing	5.64	5.21	5.35	5.38	5.4	5.25	-2.16
Health Care	4.63	4.51	4.84	4.81	4.77	4.78	0.34
Education	11.39	11.41	11.65	11.53	12	13.04	3.26
Entertainment	4.97	4.94	4.97	4.89	5.07	4.78	-0.39
Transportation	10.96	11.15	11.18	11.62	12.02	11.88	1.33
Communication	6.55	6.48	6.26	6.08	5.89	5.48	3.4
Total	74.01	74.08	74.11	73.71	73.71	73.92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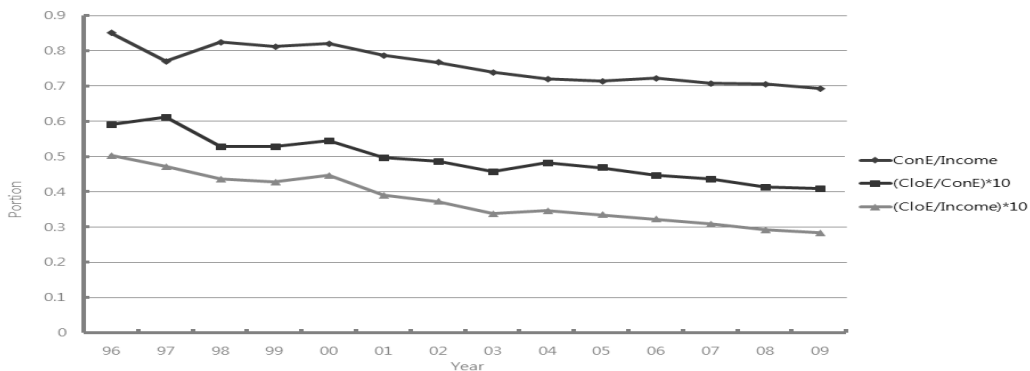
대비 증가분의 크기로 나타내면 교육비는 22.4% 증가한 셈이며, 통신비는 161.9% 증가한 셈이 된다.

## 2) 미국 소비자 피복비 가계지출 변화

반면 미국의 경우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영향 없이 1996년 이후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소비지출액수를 보면, 1996년 \$28,81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3년 다소 감소가 있었으나 2004년 바로 회복되어 2008년에는 \$43,605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3] 에는 1996-2008년 기간 동안 미국 가

계의 피복비 지출액 규모 변화가 소득 및 소비에서의 비중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1996년-2008년 기간 동안 개별 연도별로 불규칙한 등락을 보이지만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Table 2>에는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의 가계지출 항목별 비중(전체 가계지출 대비 해당 항목 지출)이 제시하였다. 1996-2008 기간 동안 주요 소비 항목별 지출변화를 살펴본 결과, 식료품, 피복비 등 생활 필수항목의 소비 비중은 한국과 같이 줄어들었으나 감소 규모는 한국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한국보다 지출 비중이



[Figure 3] US Households' Clothing Expenditure Proportion during 1996 - 2008 (CloE=Clothing Expenditure; ConE=Consumption Expenditure)

<Table 2> US Households' Consumer Expenditure Proportions during 1996-2008 (%)

Year	96	97	98	99	00	01	02
Food	15.6	17.0	15.2	15.2	15.1	15.1	14.9
Housing	20.6	22.5	21.1	21.2	20.9	21.6	21.7
Clothing	5.9	6.1	5.3	5.3	5.4	5.0	4.9
Transportation	20.9	22.9	20.9	21.2	21.8	21.7	21.5
Entertainment	6.2	7.0	6.0	6.2	5.9	6.0	6.2
Education	1.6	2.0	1.8	1.9	1.9	1.8	2.1
Total	70.8	77.5	70.4	71.1	70.9	71.3	71.3
Year	03	04	05	06	07	08	08-96
Food	14.9	15.4	14.7	14.6	14.2	14.8	-0.9
Housing	22.0	21.3	21.9	23.0	23.3	23.4	2.8
Clothing	4.6	4.8	4.7	4.5	4.4	4.1	-1.8
Transportation	21.7	20.7	20.7	20.3	20.3	19.7	-1.1
Entertainment	6.1	6.2	6.2	5.9	6.5	6.8	0.6
Education	2.2	2.4	2.3	2.1	2.2	2.4	0.8
Total	71.3	70.8	70.7	70.4	71.0	71.2	0.4



높은 교통비의 경우에도 지출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비는 0.9%포인트, 피복비는 1.8%포인트, 교통비는 1.1%포인트 감소하였다. 한편 가장 크게 증가한 항목은 주거비로서 1996년 20.57%에서 2008년에는 23.39%로 2.8%포인트 증가하였다. 미국의 주거비 지출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은 미국의 경우 자가 소유에 대한 임대비용이 포함된 데 비하여 한국은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996-2008 기간 동안 한국의 경우 1997년에 경제위기로 1998년-9년간 소득과 그에 따른 소비지출이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00년 이후 점차 회복되었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이러한 경제위기의 영향 없이 1996년 이후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소비지출의 경우 2003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4년에 바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나라의 소비지출에서 피복비 지출을 비교한 결과, ① 미국과 한국 모두 피복비 비중이 하락하였으며, ② 하락 정도는 한국이 미국보다 더 심하고, ③ 한국은 외환위기 때 급격히 하락하였다가 이후에 다소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비하여 미국은 개별 연도별로 불규칙한 등락은 있지만 대체로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2. 이중차이모형에 의한 한국-미국 피복비 지출 비교

<Table 3>에는 <Table 1>과 <Table 2>에 제시된 한국과 미국의 피복비 항목 지출 비중에 대한 차이가 연도별로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1996년 1.5는 한국의 피복비 지출 비중인 7.4%에서 미국의 피복비 지출 비중인 5.9%를 뺀 1.5%포인트를 의미한다.

한국과 미국 비중 차이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1997년에는 그 전년도인 1996년에 비하여 한국의 피복비 지출 감소폭이 더욱 컸으며(0.5%포인트), 이러한 경향은 2000년까지 지속되었다. 1997년부터 2000년은 한국이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를 겪었을 때이다. 특히 1998년이 경

기침체가 가장 심했을 때인데, 이 해의 차이가 0.1%포인트로 가장 작아서 한국의 (미국과 비교한) 상대적인 피복비 비중이 가장 낮았음을 보여 준다. 한편 <Table 3>의 우측 하단 칸에 제시된 -0.4%포인트는 1996-2008년간 한국과 미국의 피복비 비중 차이에 대한 차이, 즉 2008년도 차이인 1.1%포인트에서 1996년도 차이인 1.5%포인트를 차감한 값이다. 이 이중차이(Difference in Difference) 값은 -0.4%포인트로서 1996-2008 기간 동안 한국과 미국 모두 피복비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이러한 경향은 한국이 미국보다 더 심했음을 보여 준다.

<Table 1>과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과 한국의 피복비 비중이 모두 하락한 것은, 미국과 한국에 피복비 지출 감소를 초래하는 공통 원인이 있을 것임을 보여 준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소싱이 활발해지고 중국으로부터의 중저가 의류 제품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의류 가격이 낮아졌다면(Son, 2007; Lee, 2006) 이는 피복비 지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 소싱과 중저가 의류 제품 수입은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한국과 미국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에 의류 가격 변화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활용하여 1996년 물가를 기준으로 전체 소비자 물가 대비 의류의 상대적 물가를 살펴보았다.

<Table 4>는 1996-2008 기간 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피복비 물가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1996년의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와 피복비 물가지수를 각각 100으로 놓고, 그 이후 매해의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대비 피복비 물가지수의 비율을 %로 나타낸 것이다. 특정 연도의 값이 100보다 작다는 것은 1996년 대비 해당 연도의 피복류 가격 상승 수준은 전체 소비자 가격 상승 수준에 비하여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표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한국과 미국 모두 1996년 이후 피복비 물가는 전체 소비자 물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하락하였음을 알

<Table 3> The Difference between Korea-US Households' Consumer Clothing Expenditure Proportions during 1996-2008 (% Point)

Year	96	97	98	99	00	01	02
Difference (Korea-US)	1.5	0.5	0.1	0.3	0.3	0.7	0.8
Year	03	04	05	06	07	08	08-96 Difference
Difference (Korea-US)	1.1	0.4	0.7	0.9	1.0	1.1	-0.4

수 있다. 특히 2008년 한국의 상대 비중은 87.7이지만 미국은 65.8이어서, 한국보다 미국에서 의류의 상대 가격 하락 폭이 훨씬 컸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의류 가격 하락이 피복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복비 가격 변화가 전체 소비자 물가 변화와 동일하였다면 피복비 지출 비중이 얼마나 되었을 지를 추정하였다. 예를 들면, 어느 해의 피복비 물가의 상대 비중이 90이었고, 가계지출에서 피복비 지출 비중이 6.0%이었을 때, 피복비 물가가 전체 소비자 물가와 동일하다면(상대 비중이 100이었다면), 피복비 지출 비중은 6.7%이 되었을 것이다(=  $6.0 \times \frac{100}{90}$ ). 이는 피복비 물

가 하락이 피복비 지출 비중을 0.7%포인트 감소시켰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상대 물가 차이를 보정함으로써 피복비 물가 하락이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는 것은 가격 하락이 지출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할 수 있다. 이에, 결과를 해석할 때는 상대 물가 차이 보정에 의한 물가 하락의 영향 추정치는 실제 값보다 크며, 물가 하락의 영향을 제거한 후의 지출 변화분은 실제 값보다 작다는 점에 주의하여 살펴보았다.

<Table 5>에 상대 물가 차이를 보정했을 때의 피복비 지출 비중을 제시하였다.

<Table 4> Korean & US Relative Price of Clothing during 1996-2008

Korea	Year	96	97	98	99	00	01	02
	Relative Price of Clothing		100	97.3	94.1	95.0	94.3	93.3
US	Year	03	04	05	06	07	08	
	Relative Price of Clothing		93.6	90.7	89.1	89.5	89.6	87.8
Korea	Year	96	97	98	99	00	01	02
	Relative Price of Clothing		100	98.6	97.2	93.8	89.6	85.6
US	Year	03	04	05	06	07	08	
	Relative Price of Clothing		78.2	75.9	72.9	70.6	68.4	65.8

<Table 5> Korean & US Households' Clothing Expenditure Proportion after Adjusting to the Relative Price during 1996-2008 (% Point)

Korea	Year	96	97	98	99	00	01	02
	Real Proportion		7.41	6.59	5.43	5.57	5.73	5.64
Adjusted Proportion		7.41	6.77	5.77	5.86	6.08	6.05	6.04
Korea	Year	03	04	05	06	07	08	Difference (08-96)
	Real Proportion		5.64	5.21	5.35	5.38	5.40	5.25
Adjusted Proportion		6.02	5.75	6.00	6.01	6.03	5.98	<b>-1.43</b>
U.S.	Year	96	97	98	99	00	01	02
	Real Proportion		5.91	6.12	5.29	5.28	5.44	4.96
Adjusted Proportion		5.91	6.21	5.44	5.62	6.07	5.80	5.92
U.S.	Year	03	04	05	06	07	08	Difference (08-96)
	Real Proportion		4.57	4.83	4.69	4.46	4.37	4.13
Adjusted Proportion		5.84	6.35	6.43	6.32	6.39	6.28	<b>0.37</b>

<Table 5> 하단부에 제시된 미국의 경우 피복류 가격 하락이 지출에 미친 영향을 보정한 후에는 1998-2008 기간의 미국의 피복비 지출 비중 차이는 0.37%포인트이다. 이는 피복비 가격 변화가 전체 소비자 물가 변화와 동일하였다면, 즉 피복비 가격 하락이 없었다면 미국의 2008년의 피복비 지출은 1996년에 비하여 오히려 상승했을 것임을 보여준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량 변화까지 고려하면 최소한 0.37%포인트보다는 더 상승했을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미국의 피복비 지출 비중 감소는 대부분 피복비 물가 하락에 기인하였음을 나타낸다.

<Table 5> 상단부에 제시된 한국의 경우에는 물가 하락 영향 보정 후의 피복비 지출 비중 감소분은 -1.43%포인트로서 실제 지출 비중 감소인 -2.16%포인트에 비해서는 0.73%포인트가 줄었으나 여전히 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피복비 지출 비중 감소에는 물가 하락 이외의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물가 하락으로 인한 수량 변화까지 고려하면 물가 하락으로 인한 지출 비중 감소분은 0.73%포인트보다 작으며, 그 밖의 요인에 기인한 지출 비중 감소분은 1.43%포인트보다 더 컸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과 미국의 상이한 변화를 보다 분명히 파악하기 위하여, <Table 6>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피복비 비중 차이를 가격효과를 보정하지 않은 것과 보정한 것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Table 6>을 보면 한국과 미국의 피복비 가격 하락을 통제할 경우, 두 국가의 피복비 비중 감소분의 차이는 더

욱 커짐을 알 수 있다. 실제 차이는 -0.38%포인트지만 물가 하락을 통제할 경우에는 -1.80%포인트로 더 증가하였다. 그리고 앞서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물가 하락으로 인한 수량 변화까지 고려하면 -1.80%포인트보다 격차가 더 컸을 것이다. 따라서 1996-2008 기간에 미국의 피복비 지출 감소는 전적으로 피복비 물가 하락에 기인한 반면에, 한국의 피복비 지출 감소에는 물가 하락의 영향도 있지만, 그 이외의 영향이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물가하락 이외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서론에서 피복비 지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그 밖의 요인으로서 타비목의 변화로 교육·통신비 지출 증가를 지목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의 주장(Lee, 2005, 2006)을 수용한 것인데, <Table 1>에서 보듯이 다른 소비 항목들 중에서 교육·통신비 지출만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여 피복비 지출과 대칭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교육·통신비 지출 증가와 피복비 지출 감소의 관계를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Table 1>과 <Table 4>에 제시된 한국의 피복비 비중을 종속변수로 하고, 상대가격지수, 교육통신비 비중, 외환위기 가변수(1998-2000은 1, 나머지 기간은 0)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R^2$  값은 0.91이다. 따라서 1996-2008 기간의 피복비 지출 변화의 대부분은 피복비 상대가격 하락, 교육·통신비 지출 증가, 경제위기라는 거시환경적 요인들로 설명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2$  값이 높은 데 비하여 자료수가 13개이므로 계수값의

<Table 6> Korean & US Households' Real and Adjusted Proportion Difference during 1996-2008 (% Point)

Year	96	97	98	99	00	01	02
Real Difference	1.5	0.47	0.14	0.29	0.29	0.68	0.79
Adjusted Difference	1.5	0.56	0.33	0.24	0.01	0.25	0.12
Year	03	04	05	06	07	08	08-96
Real Difference	1.07	0.38	0.66	0.92	1.03	1.12	-0.38
Adjusted Difference	0.18	-0.60	-0.43	-0.31	-0.36	-0.30	-1.80

<Table 7>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f Korean Households' Clothing Expenditure

	Relative Price	Education · Communication	Economic Crisis (Dummy)
Beta(t value)	0.475(1.94)	-0.548(-2.15)	-0.451(-4.01)

$R^2=0.91$ ,  $N=13$

통계적 유의미성은 높지 않다. 계수값은 표준화 값(베타 계수)을 제시하였다. 상대가격의 계수값은 양(+)이므로 피복비가격 변화와 피복비지출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존재하는데, 분석기간 동안 상대가격은 하락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피복비 지출이 감소한 효과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교육·통신비 지출의 계수값은 음(-)인데, 분석기간 동안 교육·통신비 지출이 증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피복비 지출 감소 효과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경제위기의 계수값은 음(-)이므로 경제위기 기간에는 피복비 지출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 독립변수의 표준화 계수값은 절대값 기준으로 교육·통신비가 다소 크지만 대체로 유사하다. 따라서 이 회귀분석 결과는 교육·통신비 지출 증가의 영향이 다소 크기는 하지만, 1996-2008 기간의 피복비 지출 감소에는 피복비 가격 하락, 교육·통신비 지출 증가, 경제위기가 유사한 정도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한편 교육·통신비 대신 나머지 항목의 지출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도 실시하였는데, 이의 계수값은 전혀 유의미하지 않았다.

## V. 논의 및 제언

본 논문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피복비 지출 패턴은 그 이전과는 다른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미국의 자료를 비교하였으며, 이중차이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양 국가의 피복비 지출 감소 원인의 공통점과 다른 점을 밝혔다.

한국의 경우 총 소비 지출액 중 피복비 비중은 1990년대 중반에 비하여 그 이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1998년의 외환위기 직후에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소 회복하였지만 2008년까지도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는 크게 미달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통신비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교육비 비중도 2008년까지 계속 증가하였다. 따라서 소비자 지출 패턴의 구조적인 변화에 따라 피복비 지출 감소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0년대 말 외환 위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미국의 경우에도 소비지출에서 피복비의 비중은 1996년 5.49%에서 2008년 3.69%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한국과는 달리 두드러지게 지출이 증가한 다른 소비 항목은 발견할 수 없었다.

1996-2008 기간의 피복류의 (전체소비자 물가 대비) 상대 물가 변화를 살펴본 결과 피복류의 상대적 물가는 한국과 미국 모두 하락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하락폭이 한국보다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복류 물가 하락이 피복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미국의 경우는 2008년의 피복비 지출은 1996년에 비하여 약간이지만 오히려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피복비 지출 비중 감소는 전적으로 피복비 물가 하락에 기인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피복비 가격 하락의 영향을 보정한 후에는 피복비 지출 비중 감소 폭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존재하였다. 물가 하락의 영향은 전체 감소분 -2.16%포인트 중에서 0.83%포인트 미만이어서, 전체 감소분의 2/3 이상은 물가하락 이외의 요인에 기인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미국의 경우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소싱에 따른 중저가 의류 제품의 원활한 보급, 쿼터제 폐지 등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해외 저가 의류제품 공급 등의 영향으로 피복비 가격이 다른 소비재 가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이 피복비 지출 비중 감소의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의 경우는 피복 가격 하락도 피복비 지출 비중 감소에 영향을 미쳤지만, 다른 요인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요인의 영향으로 교육·통신비 지출 증가를 지목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Lee, 2006)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실제 이 기간에 교육·통신비 항목의 지출만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으며, 회귀분석을 통해서도 교육·통신비 증가와 피복비 감소의 역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의 한계점으로 한국 피복비 하락의 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2000년대 이후 크게 성장한 명품시장의 영향일 수도 있으니,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피복비 가격하락의 원인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하였는데, 최근 우리나라에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구 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후속연구에서 1990년대 경제위기를 함께 경험했던 아시아권 국가의 피복비 지출을 한국과 비교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피복비지출, 가계지출, 한국, 미국, 이중차이

## REFERENCES

- Babbie, E. R.(2003)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10th ed.).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 Consumer Expenditure Survey (2011). *Bureau of Labor Statistics*. Retrieved January, 12, 2011, from <http://www.bls.gov/cex/home.htm>
- Chung, Y. S. (1999). Impact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on consumption pattern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0(4), 61-73.
- Dardis, R., Derrick, F., & Lehfeld, A. (1981). Clothing demand in the United States: A cross-sectional analysi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 212-222.
- DeWeese, G., & Norton, M. I. T. (1991). Impact of married women's employment on individual household member expenditures for clothing.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5(2), 235-257.
- Ji, H. K., Rhee, E. Y. (1999). The characteristics of clothing consumption expenditures by the business cycl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3(5), 745-756.
- Jung, S. J., & Rhee, E. Y. (1997a). The change of clothing expenditures and its determinants in Korea: A time-series analysis (Part I).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1(5), 889-902.
- Jung, S. J., & Rhee, E. Y. (1997b). The change of clothing expenditures and its determinants in Korea: A time-series analysis (Part II).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1(7), 1139-1152.
- Ken, K. (2001). Analysis of the Decreasing Clothes Consumption in Japan - some New Tendencies of Consumer Behavior in the Basis of Data of Psychology, Time-use and Expenditure.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stume Culture Conference*, 29-31.
- Kim, A. & Shin, M. (2011). Korea's luxury market: demanding consumers, but room to grow. *McKinsey & Company*. Retrieved March 2, 2012, from [http://csi.mckinsey.com/Knowledge\\_by\\_region/Asia/South\\_Korea/Korealuxury.aspx](http://csi.mckinsey.com/Knowledge_by_region/Asia/South_Korea/Korealuxury.aspx)
- Kim, Y. S. & Wang, I. S. (1989). An analysis of clothing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 in urban household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7(4), 21-39.
- Kim, I. S. & Yeo, J. S. (1996). Private Educational Expenses of Household & the Related Factor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4(3), 137-150.
- Kwak, I. S. & Song, Y. S. & Kim, K. A. (1999). The financial crisis effects on the family life-A comparison between before and after IMF.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17(1), 121-137.
- Lee, J. S. (1998).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consumption after IMF .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 21, 55-74.
- Lee, M. (2005). The effect of economic crisis on Korean households' clothing expenditu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9(2), 199-209.
- Lee, M. (2006). Changes in the clothing expenditure patterns of Korean household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4(6), 163-174.
- Lee, S (2002). A time-series analysis on the household educational expenditur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7), 101-118.
- Lee, Y. S., Yuk, S. H., Choi, W. K., Lee, S. G. & Jin, B. H. (2002). Exploratory analysis on the global sourcing and implications for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apparel firm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6(6), 751-762.
- Li, Y., Ya, L.,& Hu, J. Y. (1999). Clothing expenditure and the income elasticity of Chinese consumers. *Journal of the Textile Institute*, 90(2), 121-135.
- Norum, P. S. (1989). Economic analysis of quarterly household expenditures on apparel.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3), 228-239.
- OECD (2010). Education at a Glance 2011: OECD Indicators. Retrieved March 2, 2012, from <http://www.oecd.org/edu/eag2011>
- Oh, S. D. & Choe, J. I. (2004). An empirical study on

- information-communication expenditure: On habit formation, price and income elasticity. *Korean Journal of Economics & Management*, 29, 25-40.
- Park, K. H. & Bae, M. K. (1997). The effect of status type on clothing expenditures: Status consistency and status inconsistenc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5(4), 1-14.
- Park, S., & Widdows, R. (2001). Korean households' clothing expenditures by categori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9(1), 1-10.
- Shin, M. S. (2005). *The Analysis Household expenditure on telecommunication services and Welfare · Culture · Communication*. Gwacheon: Korean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Son, M. Y, (2007). *Global Fashion Marketing*, Seoul: Changjisa.
- So, Y. K. (2000). Structure of the consumption expenditure by income bracket -Comparative analysis before and after IMF-.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8(12), 1-14.
- Winakor, G. (1989). The Decline in Expenditures for Clothing Relative to Total Consumer Spending, 1929 - 1986,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3), 195-215.
- Yang, S. J. (1997). Wife's employment and family economic statu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5(4), 165-182.
- Yang, S. J. (1998). Wife's employment and family expenditur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6(1), 169-186.

| 접수일 : 2012. 03. 19.  
 | 수정완료일 : 2012. 04. 06.  
 | 게재확정일 : 2012. 04. 07.